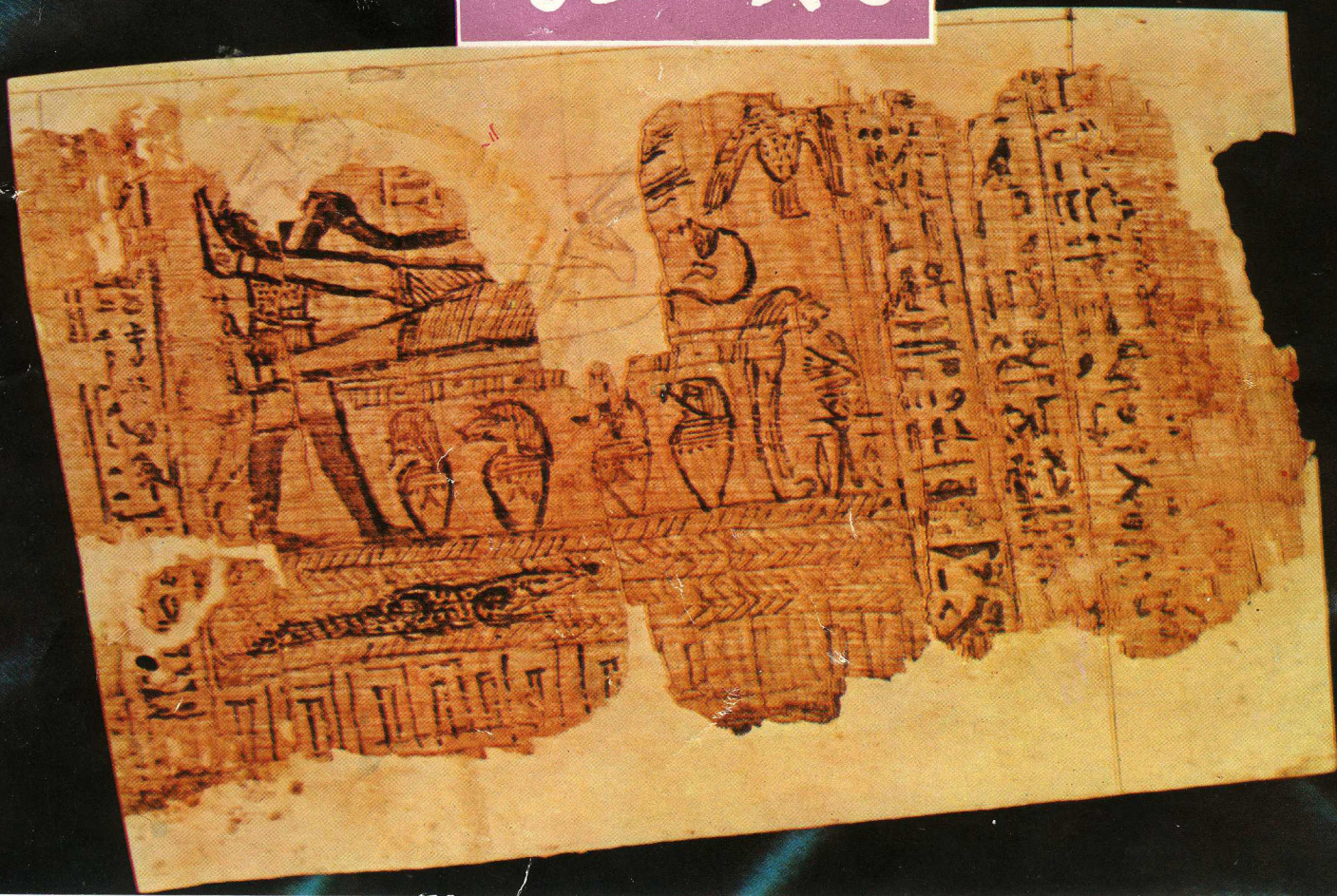


성도의 벗 5





영감의 메시지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 사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니, 곧 兄弟姊妹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구원과 승영의 사업에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眞理의 수호자요, 人間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나아가 그들을 승영으로 인도할 구원의 眞理의 수호자인 것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커다란 조직체를 내려주셨고, 이 조직의 궁극의 목적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는 우리들 스스로가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任務를 遂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협의회를 조직하여 일하고 여러 프로그램의 운영과 현명한 책임의 이행방법등을 研究하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조직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운영을 許可하신 하나님의 조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하겠다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파오나 약점에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子女로 이들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강제한다던가 협박한다던가 혹은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사람을 징벌하는 따위의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현명하고 유능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할진대 주의 영을 구하고 또 영의 안내를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00
500
500
500
700

2000

공보부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68년 5월 1일 통권 제34호

발행인 : 배 일 문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T. S. D.)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전화 ㉞ 3995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제4권 제5호

성도의 벗

1968년 5월호

권두언 :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1
고대 애굽땅 선지자들의 피신처 도일 그린	3
애굽의 파피루스 다시 발견되다 제이. 엠. 토드	6
관리 감독관 페이지 : 교육에 관하여 젊은이들에게 존 에이취. 반덴빅	11
상호부조회 : 교회 역사에 공헌한 여성의 힘 케네드 더블유. 감프리	13
주일학교 : 불이 켜져야 할 등 존 에프. 스페포드	16
상호 향사회 : 상향회에서의 성장기간	19
청소년편 : 단란한 가족의 유대 로사린 환스위스	21
계보 : 가족단위	23
선교부장 메시지 배 일문	26
헝크리 사도 한국에 오시다	26
지부소식	28

이달의 표지

上 : 에집트의 파피루스가있던 지방의 고적. 본문 3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下 : 뉴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값진 진주의 아브라함서 서문에 해당하는 복사한 그림 1의 원본의 사진. 본문 6페이지를 참조 하시오.

어린이 차지 : 황금별. 폐기의 두가지 선물. 이스라엘의 두마.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에베소서 4 : 11~13)

이 구절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협의회 프로그램을 말할 때에 내세우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신권소유자와 회원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장 높으신 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에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는 책임을 주셨으니, 그것은 각 개인을 온전케 하려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육과 가정의 밤 계획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계획은 매우 밀접한 관

계를 갖고 협의회 프로그램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생활의 모든 면에서 가르치고 고무하며, 훈계하고 지도하는 데에 가장 절박하면서도 보람있는 기회가 됩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감독의 지시하에 신권 정원회를 통하여 실시되며, 이로인하여 복음의 메시지, 생명과 구원 및 형제애의 메시지가 교회의 가르침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가정에 전달됩니다.

가정 복음 교육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억해 두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르쳐야 할 사람들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족이 서로 다르듯이 한 가족이라하더라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각 개인과 그 개인의 문제와 요구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권 소유자인 동시에 감독의 대변자인 우리의 신뢰와 보살핌을 받게 되어있는 가정과 가족의 모든 사람, 즉 모든 어린이, 젊은이 혹은 어른들의 태도, 활동과 관심사, 문제가 되는 일, 직업, 건강 및 행복 여부, 그들의 계획과 목전,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 현실적 혹은 영적인 요구와 형편에 관하여 늘 알고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요셉 스미스와 그의 뒤를 이은분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며, 복음은 회복되었으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교회의 원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행복과 영생과 승영이 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정 복음 교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강한 간증과 봉사하려는 진실한 뜻은 우리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의 목적을 주며 그들이 교회에서 온전한 우애를 갖겠다는 욕망을 갖게 합니다.

셋째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말씀을 빌려, 가정 복음 교육의 목적에 적용시키면, 가정 복음 교사는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며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여야”합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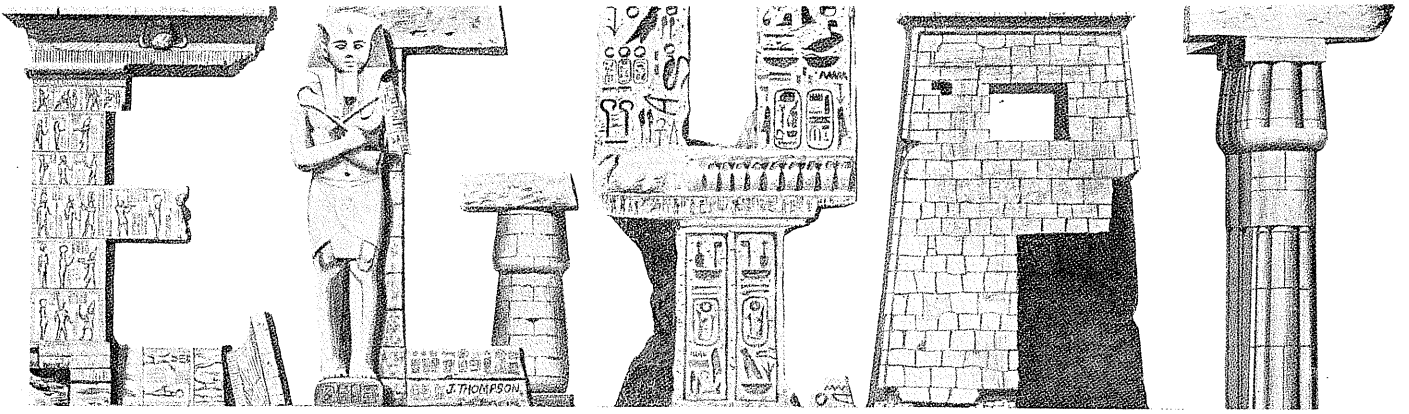
가정 복음 교육은 성스러운 일인 동시에 성스러운 부름입니다. 모든 가정과 가족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것이 가정 복음 교사의 책임입니다. 사랑하고 일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는 귀하고 헌신적인 교사 모두에게 끝없는 화평과 기쁨과 만족이 올 것입니다.

가정의 밤 교재는 각 가정의 환경에 맞도록 신축성 있게 사용해주시고, 시온에 자녀들을 둔 부모는 자녀들이 참 뜻을 이해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땀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기 바라며, 가정에서 실패하면 그 어느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은 가족을 함께 모으고 진리와의,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충성이 깃든 분위기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바탕이며, 다른 어느것도 가정을 대신해서 가정의 근본적인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랑과 의로움, 훈계와 모범, 의무에 대한 성실성이 아니라면 그 어느것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보살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며 그들이 여러분 가까이에서 머물게 하므로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면 가정에는 사랑이 차고 넘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의 마음 속에는 신앙이 자라서 이들은 악한 힘과 유혹을 물리치고 의로움과 화평을 취할 능력을 갖게 되며,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될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실하고 가족들에게 진실하고 성실하십시오.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는 친절하고, 어머니는 자애로운 모범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정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신권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교회의 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애굽땅

— 팔레스타인의 이웃 —

선지자들의 피신처

도일 엘. 그린

(임프르브먼트 이라 편집인)

한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소유였으며 동시에 값진 진주의 아브라함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파피루스 원고가 발견되어 다시 교회측에 인도되었다는 사실은 고대 애굽땅에 관한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사실 애굽은 5,000년 이상이나 거슬러 올라가야 시발점을 찾게되는 장구한 역사가 있는 고대 나라이다. 그리고 귀중한 아브라함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관하여 준 무덤이 있다는 점 만으로도 우리들 인간의 마음속에 나일강 유역 그곳이야말로 영광의 대상이 되기에 족한 장소라고 하겠다.

그러나 사실 애굽은 파피루스를 보관하였다는 이상의 뜻을 갖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기근으로 허덕일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식생활을 해결해 준 안식처이기도 한 것이다. 후로는 요셉의 고향이 되었으며, 성스러운 땅이 다시 찾아온 기근으로 심한 타격을 받고 있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도 안식처를 제공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출 1 : 8)라는 구절로 보아 이스라엘의 자녀는 노예의 상대로 변하고 말았다. 당시 모세를 통하여 역사 하시던 하나

님이 노예의 속박을 풀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까지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 곳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이었다.

우리가 애굽이란 나라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해야 될 것은 비록 고향은 아니었지만, 아기 예수에게 무사히 피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요셉이 천사의 명을 받아 아기 그리스도를 어머니와 함께 무자비한 헤롯왕 군졸들의 창검을 피해 도망하여 죽음을 면케한 나라이다. 아브라함서에 보면 애굽은 원래가

“한 여인이 발견하였나니 함의 딸이라. 애굽터스의 딸이니……

“이 여인이 그 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물 아래 있었으나 후에 이 여인은 자기 아들들을 이곳에 정주하게 하였더라……

“애굽의 처음 정부는 함의 딸 애굽터스의 맏 아들 바로가 세웠고 함의 방식에 따랐으니 곧 족장 정치였더라.

“의인이던 바로는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저의 생애동안 그 백성을 현명하고 공평하게 다스렸고 최초의 세대 곧 최초의 족장 통치 시대에 선조들이 세운 제도를 따르려고

간절히 힘썼으니 그 제도는 아담의 통치 및 노아의 통치 시대에 있던 것으로……”(아브라함서 1 : 2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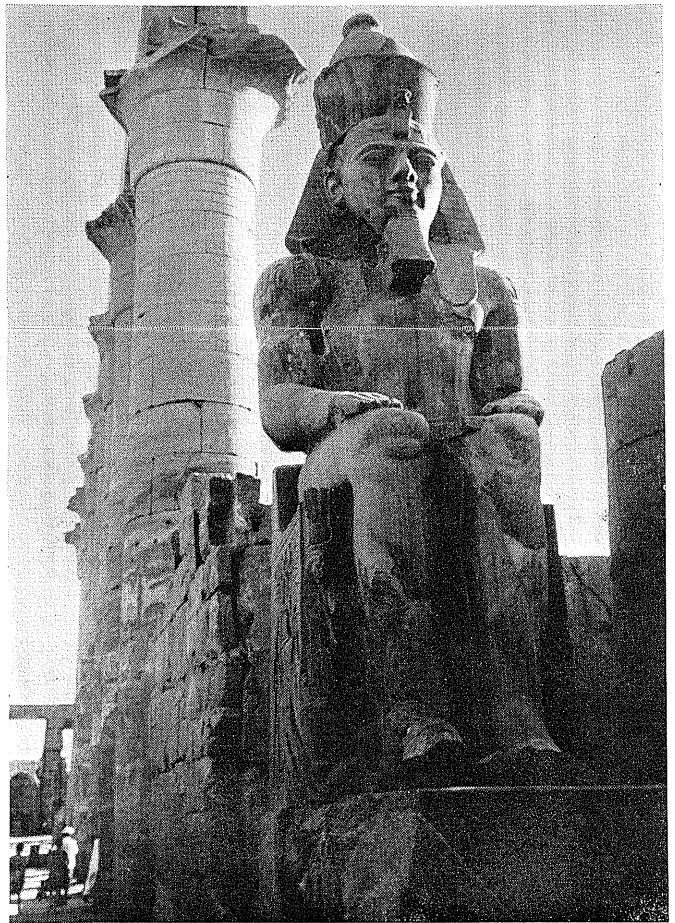
애굽이란 말은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당시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들었음을 알게된다. 아마도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애굽으로 간 것은 기근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서에 수록된 자신의 기록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나 아브라함은 여행을 계속하여 남쪽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그 땅에는 기근이 계속되고 있어 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그 곳에 머물기로 정하였더라. 이는 기근이 매우 심하게 되었음이라.” (아브라함서 2 : 21)이 구절에는 과연 아브라함이 애굽땅의 어디에, 또는 얼마 동안을 체류하였는지에 관하여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때에 애굽 중앙 정부청사와 바로의 집은 현재의 카이로 근처인, 예루살렘에서 약 275마일 지점에 위치한 멤피스였거나 아니면 나일강을 따라 375마일을 더 올라가야하는 티브즈가 아닌가 한다.

여하튼 1835년 7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수중에 들어왔던 미이라와 파피루스가 발견된 곳은 고대 도시 티브즈 근처였던 것이다. 애굽의 북부지방을 여행하는 말일성도 관광객은 아브라함서와 이 파피루스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룩소와 카낙 도시에 산재한 옛 사원과 무덤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카낙 사원을 지금까지 인간이 지은 원주형 건물중 제일 큰 것이라고 한다. 돌 하나로 세운 기둥과 역대 바로 왕의 거대한 동상을 보더라도 그 규모가 얼마나 웅대한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 마약 솟고 있던 어느날 아침, 우리들 일행은 나일강을 건너서 티브즈의 무덤과 장례 사원을 방문했다. 흥미의 초점은 왕들이 묻힌 능에 있는 투탄카나왕의 무덤이었다. 이 무덤이 발견된 것이 내가 국민학교 이학년 때였다. 그 때에 나이는 어렸지만 호기심을 잔뜩 끄는 이야기였으며, 이 위대한 유물이 풍기는 오랫동안의 연상과 또한 그런 것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에 대하여 감명받은 바가 크다. 친절한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그때의 감격이 가슴속 깊히 새겨진 것이다. 이 묘는 무덤을 전문적으로 터는 도둑의 손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연구자들이 고대 애굽인의 생활과 시대에 관하여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고도 남는 것이었다. 귀중한 보물은 대부분 카이로 박물관으로 옮겨 진열하고 있으나 몇개는 방문객의 흥미를 돌리기 위하여 그대로 놓아두었다.

제33묘로 안내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안내는 놀랐다. 왜 그 특별한 묘를 보자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아주 정묘하게 단장된 널리알려진 묘는 이미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조사해온 터이었다. 어쨌든 안내원은 그 33번 묘는 오래전부터 창고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안내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굽 북쪽에 있는 룩소 신전에는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은 크고 잘 보존된 좌정한 바로 상이 있다. 이 바로 상과 원주형은 좌측 하단에서 측정할 수 있다.

카아낙 신전에 있는 돌 하나로 된 이 비석들은 높이 97 피트 되는 견고한 돌로 되어 있으며 무게는 각각 350 톤이 된다.



《관리 감독단 페이지》

교육에 관하여 젊은이들 에게

“교육의 목표는 인격형성에 있으며 과학, 역사, 문학등은 바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에 불과하다”



존 에이취. 반덴빅

“인류를 지배하는 힘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모두가 대 제국의 운명이 청년의 교육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 교육이 점유했던 중요한 위치에 관하여 기술할 때 했던 말이다.

우리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처럼 교육은 성공의 열쇠라

고 결론을 내렸던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도가 어렸을 때에 장로들과 더불어 성전에서 토론했던 것이나, 모세가 궁전에서 “애굽인들의 지혜를 배웠던” 것이나,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움을 구했던 것을 상고해 보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될 만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역사상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교육의 한가지 산물이 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가족의 장래의 경제적인 안녕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서는 교육의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학생들은 주로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편의를 얻기 위하여 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목적이 꼭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또한 교육의 가장 높은 목적이 되지도 않으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그렇다고하여 생계를 위한 교육의 가치를 과소 평가해도 안된다.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유리한 투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복음의 이상 429페이지)

이 과학의 시대에서, 교육은 직업 획득을 위하여 가장 중대하게 평가되는 요소가 되어 있다. 과거에는 노동할 수 있는 힘 만을 요구하던 직업들이 이제 와서는 기계로 대체되어 있다.

수많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자기들에게 만족한 직업을 얻기 위하여 부가적인 특별훈련 혹은 전문적인 훈련이 요구된다는 가혹한 현실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교회의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표하였다. “교회는 회원과 특히 젊은이들에게 대학 교육을 받던가 실업학교에서 일정한 직업 훈련을 철저히 받을 것을 오래전부터 계속 장려해 왔다. 교육이나 훈련을 요하지 않는 직업은 해가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실제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젊은이 모두가 고등학교 이상 모종의 정식학교에 입학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다.”

젊은이 여러분은 이러한 현실을 주목하고 고등학교 이후의 수업을 여러분의 장래 계획과 연관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유익이 단순한 경제적인 것 이상으로 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잘해야 세속적이고 평범한 일거리 밖에 얻지 못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감원파동에 희생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기업 조합 재정 담당 기자인 실비아 포터는 젊은이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관하여 말하면서 훈련을 받지 않은 결과로 “...너무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봉급이 낮은 공장이나 운영이 잘 안되는 공장이나, 가장 침체된 직업밖에 갖지 못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실직자의 부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다...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왜 부가적인 직업교육 및 전문 교육을 요구하는가? 그 이유는 적어도 경제적이라는 대답이 분명하다. 그러나 맥케이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교육의 가장 높은 목적이”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교육의 보다는 큰 목적이란 무엇일까? 다시 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인격 형성이 참 교육의 목표이며 과학, 역사, 문학 등은 바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교육의 목표를 위와 흡사하게 말씀하셨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이해하면 유익한 이론과 원리와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 또 하늘과 땅과 아래의 일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과 국내의 일과 외국의 일 그리고 전쟁과 여러 국민간의 갈등 지상에 임할 심판 및 여러 나라와 왕국에 대한 지식도 배우게 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부른 소명과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게 하려고 또다시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모든 일에 준비를 갖추어 두게 하려는 것이니라.”(교성 88 : 77~80)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역사, 수학, 영어 등을 공부한다는 것은 말일성도 젊은이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훌륭하게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여러분의 사명과 부름을 잘 이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식을 습득한다고 하여도 주님의 의도를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깊이 고려해야 할 또다른 차원이 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 다른 차원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강조하셨다. “지식을 얻는다는 것과 지식을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다른 일이다. ...고귀하고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도야하는 방향으로 지식을 바르게 적용하게 하는 것은 지혜이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역사와 수학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심리학, 생물학 혹은 천문학에 대하여 권위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연 과학에 관하여 (발견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도 이웃을 합당하게 대우하며, 개인적인 생활에서 덕과 경건함을 실제로 실현 할 수 있는 고귀한 영혼을 갖지 못한다면 참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다.”(복음의 이상 440페이지)

그러므로 교육은 적절하게 취급되고,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될 때 가장 감미로운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며, 선지자 리하이로 기쁨을 얻는 것이 사람이 육신으로 이세상에 거하는 목적이 된다고 말하였다.

아론신권을 소유한 젊은이들과 젊은 자매들은 여러분의 교육을 자신이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참 교육은 영적으로도 필요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바꾸어 놓으면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의 젊은이들의 “참다운” 교육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 역사에 공헌한 여성의 힘

케네드 더블유. 갑프리

우리 교회는 대개 신권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말일성도 역사에 영향을 끼친 위대한 여성들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교회와 회원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정숙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들은 가정을 통해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셉 에프. 스미스가 메리 필딩 자매님과 같은 어머니의 도움 없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던가 또는 허버 제이. 그랜트가 과부인 헌신적인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음이 없이 예언자로서의 부름을 받아 들일 수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요셉 스미스의 어머니는 그의 첫 시현의 사실을 첫 번째로 믿은분이었으며, 이것은 14살 된 소녀에게 틀림없이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로 뽑히게 되면, 당사자의 위대한 인품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흔히 그 부인에게도 많은 주의가 끌리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회와 그 지도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던 위대한 물론 어머니와 부인들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수많은 말일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명예나 재산, 혹은 자신의 안전을 포기했습니다. 대학 졸업자인 올슨 스펜서 부인은 그네가 물몬교에 가입한 사실을 공언함으로써, 옛부터 사귀던 친구들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네의 부모는 말할 수 없이 상심하여 그네를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그네에 대해서 조금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1846년에 큰 결정의 때가 닥쳐왔습니다. 말일성도들은 아름다운 집과 기름진 농장을 떠나 거처를 황무지에 새로운 집을 세우기 위해 수천 마일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펜서 자매님은 몹시 앓고 있어서 포장 마차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닷새동안 비와 진누개비가 내려 슈거 크리크에서 야영하고 있는 세에, 그네의 병

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밤에 폭풍우는 아주 극심했습니다. 물줄기가 포장 마차위에 뚫어진 헛걸 구멍을 통해 새어 내려, 병든 부인에게 빗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유통을 들고 물을 받아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부로부터 올슨 스펜서에게 전하는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에 스펜서 장로님은 자기 부인의 부모에게 그네가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네가 회복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가져왔습니다. 추운고, 눅눅한 허허벌판에서 무서운 병고에 시달리며, 부인은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편지에는 만일 그네가 그네의 신앙을 버린다면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네가 이를 거절한다면, 그들의 집으로 그네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펜서 자매님은 그 편지를 듣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읽기를 끝나치자, 그네는 남편을 돌아보며, 그에게 아주 적은 목소리로, 그의 성경을 가져다가 읽기의 제일장 16절부터 읽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에 응하여 그는 읽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가 읽기를 끝나치자, 소리 없이 평화스런 미소가 부인의 자애스럽고, 품위있는 얼굴에 퍼졌습니다. 그는 눈을 내리감고 행복하고 평화스런 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네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네의 신앙은 스펜서 장로님을 도왔고, 20세기인 오늘날 또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중대한 결정의 때에 있는 많은 젊은 말일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해 동안 교회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지나 헌팅턴 영 자매님은 고린도 전서 13장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의 완전한 본보기로 알려져 지고 있습니다. 그네는 온화함과 섬세한 마음으로 행동하면서도, 한편으론 굳굳한 힘이 있어 그네의 성격은 한층 빛났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어떤 여자가 그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네는 말한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네는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을 그분도 어쩔 수는 없겠죠.”라고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물론 여성중에는 요셉 스미스의 시중을 들던 안트 제인 제임스가 있습니다. 예언자가 사망하셨다는 것을 듣자, 그도 역시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교사는 그네에게 예언자는 그네가 살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힘을 얻어 그네는 솔트레이크시로 가서 거기서 존경 받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네를 위해 붉은 벨벳으로 선을 두른 특별한 의자를 만들어, 모든 대회에서 잘 보일 수 있게 단을 마련하여 의

자를 놓았습니다. 예언자를 위한 그네의 사랑은 끝없는 것이었고, 예언자는 그네가 접촉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그네는 늘 말했습니다.

폴트레이크 계곡에서, 여성들은 물론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해 왔습니다. 안토니 아이빈스의 딸인 페아 아이빈스 카든은, 그네가 멕시코에서 살았을 때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네가 말하는 어렸을 적의 이야기는 어떤 소녀가 그의 남자 친구를 멕시코 군인의 손에 넘겨주는 대신 그녀의 발이 새까맣게 탈 때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석탄불위에서 있다가 마이빈스 카든 앞에 기진해 넘어지는 인내심 많은 소녀의 일이 가끔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그네는 또한 그들의 어머니, 안트 클라디즈가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안트 베기 벤틀리가 그의 작은 아기와 베헤제 자매를 데리고 그네의 집으로 들어와서 돌봐주었는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섯 식구에서 이제는 열한 식구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두달 뒤에 산 꼭대기로 가는 가파른 후미진 길에서, 자기의 작은 아들을 그네 옆의 작은 상자에 얹히고 갔습니다. 그네는 팔에 안트 클라디즈의 아기를 얹고 있었습니다.

조지 캐논 부인은 그네의 첫째 아들의 영구를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시온에 운반하여 묻기 위해서, 잘 안치해 두었습니다. 폴트레이크로 오는 도중에, 그네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둘째 아이도 죽었습니다. 두 아이들의 영구를 모두 계곡으로 운반하여 눈물속에서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네는 신앙을 잃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낳아, 훌륭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12살 때 대초원을 넘은 바 있는, 엘리자베스 펠시퍼는 그네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

“우리는 미조리 강에서 포트 리븐 윌드로 갈 때, 들소떼를 만났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그것에 치이기전에 얼마나 떠돌아 다녔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데리러 오라고 아버지를 부르러 몸을 마차에서 내밀자 마부가 앞으로 들어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네는 미끄러져서 치어 몹시 다쳤습니다. 포트 라라미에 도착하자, 우리들은 문도 창도 없는 낡은 통나무 집에 어머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나는 쇠약한 어머니와 얹고 있는 아기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식구는 일곱명이었습니다. 단지 12살 밖에 안됐지만, 나는 거의 매일 밤을 병 앓는 아기를 돌보며 뜯눈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양식을 구하러 포트로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교도들이 그네의 아버지에게 시온으로 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들과 함께 오마하로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했던 전날 밤, 어머니 펠시퍼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네의 침대곁에 서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시온으로 가는 시현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두대의 황소 운반 기차가 올 것이며, 한대는 쏘트 레이크시까지 가족들을 데려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가족을 오마하로 데리고 갈 마차가 왔을 때, 어머니는 가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첫번째 황소 실은 기차가 도착 했지만, 가족이 탈 수 없을 정도로 짐을 많이 실었습니다. 두번째 기관장도 아버지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잡시다”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드디어 한대의 마차가 와서 고통에 지친 식구들을 싣고 산속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 여행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몹시 앓고 있던 작은 여동생을 돌봤지만, 삼일째 되는 날 어린아이는 죽었습니다. 관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없는 몸을 묻기 위해서 죽은 몸을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히고, 염을 하는 것이 모두 아직 실패 밖에 되지 않았던, 엘리자베스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다친후 처음으로 걸어서 조그만 무덤에까지 가서, 장례를 치룬 이후에, 계속해서 제곡에 이르는 남은 길을 걸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을 끄는 이야기는, 메리 필딩 스미스가 그네의 남편인, 하이럼 스미스가 사망한 이후에, 성도들이 그레이트 베이신으로 떠난 이후에 겪었던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날 당시 조그만 소년이었던 그네의 아들 요셉 필딩 스미스는 나부의 집에서, 아래층 거실의 난로 연통이 통해 있는 다락방에 앉아있었는데, 그 연통을 통해서 거실에서 하는 말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년은 그의 형 존이 히버 씨. 킴블 형제가 인솔하는 첫번째 피난민 대열에 끼어 아무도 몰래 조용히 떠나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어머니도 조만간 그네의 가족 몇몇을 데리고 떠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윌리엄 스미스 아저씨가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손을 그가 데리고 가도록 허락하라는 격렬한 음성을 듣고는 몹시 놀랐습니다.

소년은 아저씨가 축복사의 아들인 손을 요구하는 말을 들었으며, 어머니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거절하자 그의 언동은 무척 난폭해 졌습니다. 소년은 연약한 그의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컸으면 했습니다. 메리 필딩 스미스는 복음에 대한 그네의 충절에 확고 부동했으며, 교회 지도층에서의 12사도의 계승을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 들였습니다.

메리 안 스티어니스 프렐은, 오하이오의 커트랜드에 살 때, 에집트 미이라를 보았던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보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들은 검은 색이었고, 금속같이 단단했으며, 그들을 싸고 입는 옷같은 몸을 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프렐 자매님은 또한 어렸을 적의 그에게는, 주일학교에서 함께 부르는 찬송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이나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즐기세”라든가 “이스라엘의 구주”같은 노래는 날마다 불렀으며 온 마음을 다해 불렀습니다.

음악에 대해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 나부에서 가장 위대한 성악가는 수잔 디바인이었고, 가장 유명한 물몬의 찬송 작사자는 다재 다능했던 엘리자 알. 스노우 였습니다. 교회에서 노래를 가장 잘 부르기로는 엠마 루시 게이트였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그녀의 재능은, 그녀를 그 당시의 세계가 낳은 가장 위대한 소프라노의 자리로 올려 놓았습니다. 세 옥타브를 넘을 수 있는, 그네의 은방울을 굴리는 듯한 음성은 “노래하는 새처럼 자유롭고” 맑았습니다. 게이트양은 대 오페라에 공연한 첫번째 유타의 가수가 된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네는 베르린과 카셀 로얄 오페라단의 프리 마돈나 였습니다.

탁월한 연주를 보인 여성 기악가 중에는 피아니스트인 시벨라 클레이튼과 바이올린 연주자인, 로마니아 하이드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수업한 클레이튼 자매님은 그 당시에 거의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섬세한 표현으로 완벽한 피아노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위대한 물몬 여성 음악가의 표면을 들춰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또한 물몬의 연주 예술에서도 많은 역할을 담당 했습니다. 에디드 클로슨이나 로티 클라리지, 버디 카밍스등과 같은 여성들은, 그들의 위대한 작품을 통해서 많은 추운 겨울날 저녁에 쏘트 레이크에 사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물몬들은 주리아 딘 하이네와 같은 유명한 여배우를 보려고 극장으로 몰려가곤 했는데, 그를 위해서 부리감 영은 여섯 필의 말이 끌게 되어 있는 훌륭한 마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명한 모드 아담스는 옛쏘트레이크 극장에서 그네의 고상하고 감상적인 용모로해서 많은 연극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쏘트레이크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습니다.

교회가 자라오는 동안에 있었던 여성의 역할을 잊지 않는 교사는 그들의 눈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관찰하므로써 분명히 공과를 더 재미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뜻을 지키려 커다란 희생을 감수한 우리의 여성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저들의 훌륭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구세주를 믿는 영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성들이 체득한 참된 진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죽음과 고통과 의로움을 겪어내고, 이겨내고, 대적해야만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척자들이 광야에서 고통스런 여려날을 보낸 후에 무도회를 갖는 즐거움이라든가, 새로운 탄생의 기쁨이나, 선교사인 아들이나 아버지가 서로 떨어지고 만나는 슬픔이나 행복감 등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면, 우리들의 생활도 변하고, 더 큰 신앙과 결단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페이지



Dale Kilbourn.

“學生은 단순히 채워야 할 등이 아니라는 것을 교사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 교육심리학 대가들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불이 켜져야 할 등

존 에프. 스페포드

사람들은 어려움을 두고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왔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이 질문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에게는 특별히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회원인 우리들이 젊은 회원들에게 복음의 기본 원리를 가르칠 때에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주일학교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근본신앙 간증, 혹은 말일성도의 생활 방법에 대한 신념을 발견시키지 못한채 주일학교 과정을 끝마치는 학생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신전 결혼을 하며,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고, 금식 헌금을 내며,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기를 열망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복음의 벉셋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 젊은 이들의 생활에 복음의 진의를 심어주는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는 주일 학교의 많은 회원들에게 “기름을 채워주기”는 하였으나 “그 등에 불을 켜주지는” 못했다. 이 학생들은 공과 과정 전부 혹은 대부분을 배울 기회를 갖고 분명히 교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과 신앙 생활에 몰두하는 힘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간증의 불을 붙여줄 수 있을까?

가르치고 배우는 가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었다. 그 연구 조사 결과는 참으로 훌륭한 것으로 복음의 근본 원리를 지지하고 강화한다. 오늘날 우리는 배우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준비한 것을 학생들에게 제시했다는 것 만으로 가르쳤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교사들이 배우는 사람을 “지식의 흡수자”로 간주했다. 만약 어느 학생이 교사가 전달한 것을 받고 이해했다면 그의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으리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우리는 모두 매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보다 선한 지식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을 현명하게 전달하고 토론하는 것 보다 더욱 요청되는 것이 있으니 교육 심리 학자들은 배우는 사람을 단순한 “지식의 흡수자”라기 보다는 “생각하는 사람” 혹은 “지식의 산출자”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주입식 교육

<기쁨을 부어주는 활동>

교 사

- (1) 강의 방법이나 공과 내용을 학생들에게 읽어 주는 형식을 종종 사용한다.
- (2) 공과를 제시할 때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 (가) 그 림 (라) 도표와 지도
 - (나) 환 등 (마) 칠 판
 - (다) 필 립 (바) 조사 보고서 등
- (3)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을 받아드리고 기억할 것을 강조한다. 실제적인 질문을 사용한다.
- (4) 주의를 집중시키며 들은 것을 강조한다.
- (5) 학생들이 교사가 요구하는 답을 찾고,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추리해 낼 수 있도록 반토론 방법을 사용한다.
- (6) 배우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하는 문제는 완전히 교사의 책임 여하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 (7)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잘못을 지적하는 훈육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 (8) 역사적인 안목을 활용하게 한다.
- (9) 학생들이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암시한다.
- (10) 교사가 일방적으로(말하므로써) 가르치며 학생들의 질문에 즉시 응답하며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대답한다.

지식을 유도해 내고, 사고 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교육

<등에 불을 붙이는 활동>

교 사

- (1) 공과 자료를 사상, 인격, 책임감 및 간증을 기르는 “자료”로 사용한다. 반원들이 경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도록 문제의 해결 방법을 사용한다.
- (2) 다음과 같은 자료를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배우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 (가) 사 랫
 - (나) 그림, 환등, 필립, 도표, 지도.
 - (다) 교 재
 - (라) 정기 간행물, 책 등
- (3) 학생들의 추리결과 창의적인 활동을 고무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노력한다. 있을 법한 여러가지 사태를 끌어내어 분석하고 사고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개방적인(마음대로 대답할 수 있게하는) 질문을 한다. 예를 들면
 - (가) 만약……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
 - (나) 만약……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
- (4) 반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혼연 일체가 되도록 조직한다.

반원들이 예의및 행동 규범을 세우게 하므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익숙하게 한다.
- (5) 반원들이 어떤 행동에 수반 될 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미루어 말하게 하므로써 자료를 깊이 분석하게 한다.
- (6) 학생 각자가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책임을 지게 한다.
- (7) 흥미와 열의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예비적인 훈련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 (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다.
 - (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학생 개개인에 관하여 연구한다.
 - (다) 학생들이 배움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 (8) 과거의 사건들을 실 생활 다시말해서 각자의 개인 경험과 연관 시켜준다.
- (9) 복음 원리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반 행사를 조직하여 공과를 반행사에 적용시킨다. (성도의 벗 1968년 4월호 15페이지 “유월절”을 참조하시오.) 학생들이 실제로 행하여 배운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 (10) 다음과 같이 하여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한다.
 - (가) 학생들이 한 질문을 다시 학생들에게 돌린다.
 - (나) 학생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므로써 그가 질문한 것을 다시 받게 한다.
 - (다) 답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을 암시해 준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대한 이 새로운 견해는 우리의 자녀와 장래의 젊은이 교육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실제로,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이다. 저 명한심리학자이며 교육자인 켈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식은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지만 느낌은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말

하였다.

교사는 교사의 역할이 가르쳐야 할 것을 제시하고 배우는 과정을 조직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르침에 임해야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택한 길에는 험준하고 위험한 곳이 몇군데 있었다.
그들이 이 험하고 위험한 곳에 올라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을 불러 세우고
“얘야 너는 너의 아버지를 단단히 붙잡았니?” 라고 물었다

이 어린 소년은
“아니요 아버지가 저를 꼭 붙잡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깊은 진리를 예증한다.
만약 내가 안전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붙잡는 것에 만 의존한다면
나는 걸려서 넘어질 확률이 많다.
내가 계속해서 갈 길을 갈 수 있게 된것은
나의 아버지가 나를 잘 붙들어 주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로버트 브이. 오즈먼트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홀레밍 에이취. 레벨 회사)

성경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성경에는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되는 것도 많다.
그러나 성경에는 잘못 해석은
안되는 것이 많다.

종교 문헌 사전에서 인용함(레벨)

—작자 미상—



상호향상회에서의 성장기간

청소년 소녀들은 어디에 살고 있던지 혹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12살 만 되면 성인기로 접어 들기 시작합니다. 이와더 붙어 이때가 되면 이들은 상호향상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간증과 재능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주는 교사와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그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훌륭한 인물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큰 축복의 하나인 것입니다.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대로 무관심하게 방임해 두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목적을 이루고 주님의 과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자녀를 방임해 두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일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는 교수대까지라도 자녀의 뒤를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가 진리를 받아 들이면, 부모는 그만 등을 돌려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차드 장로는 또한 오발 엘스워드의 “다른 사람들은 물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기사를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물론을 본 바에 의하면, 그들은 자기 높은 수준에서 스스로 행동하며, 다른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 보다 훨씬 뛰어 났다. 나는 그들 소년 소녀들이 자라나서 명예롭고 근면한 성인 남녀가 되도록하는 그들의 노고에 단지 높은 경의를 표할 뿐이다.”

상향회의 목적은, 소년 소녀들이 근면하고 명예로운 남녀가 되도록 가르치는 부모를 돕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호향상회에 참석하는 소녀들은, 꽃별반(12내지 13세) 장미반(14내지 15세), 월계반(16내지 17세)의 각 반에서 이년씩을, 그리고 이삭 줍기반(18세 이상)에서 삼년이나 그 이상을 마치게 되면, 십년 동안을 가르침을 받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들은 상호향상회에서 소년단 혹은 전위대(12내지 13세), 탐험대(14내지 15세), 기수반(16내지 17세), 봉사반(18세 이상)의 네 단계를 거치는 동안 십년 혹은 그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상호향상회 활동은 신혼부부나 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를 가진 신선한 이상에 넘친 나이 많은 회원들에게도

그 범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향회는 교회 회원이든지 비회원이든지, 정력적인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회원과 마찬가지로 비회원들도 반활동에 참석할 수 있으며, 그 반에 따른 달성 혹은 수상계획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달성 계획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똑같지만, 상호향상회 관리자들이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은, 비회원의 생각을 고쳐 보려는 것으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별개의 사항도 정하고 있습니다.

상향회에서 행하고 있는 반활동이나 모임은 주로 개인 개인의 정신적 또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기사는 상호향상회의 활동상과 각자의 재능을 개발시키기 위한 몇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청녀반을 위한 제언

상향회의 각 반원이 일년 동안의 모든 요구사항을 이루게 되면, 개인 달성상을 탈 수 있고, 명예의 꽃별상, 기쁨의 장미상, 월계상, 황금의 이삭 줍기상을 받는 영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녀들이 영적인 또는 신체적인 성장을 하기에 필요한 이들 몇가지 요구사항만은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완전히 알아 보기 위해서는 상호향상회 각 반 교사들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별반 소녀들은 “밀집”(별집의 구멍)을 채워 나가므로서 일별상과 명예의 꽃별상을 탈 수 있습니다. “밀집”의 수는 아홉개의 조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1) 각자 매일 기도를 하므로서 신앙을 갖는다.
- (2) 본지(本誌)를 읽으므로서 **지식을 구한다.**
- (3)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고 선사해서 이웃에게 **기쁨을 준다.**
- (4) 교리와 성약 89편(지혜의 말씀)을 실행하여 **건강을 유지 한다.**
- (5) 여성적이면서도 겸손한 복장을 하고 성실한 행위를 하여 **명예로운 여성이 되도록 한다.**
- (6) 한 시간 반을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그 시간을 재능을 기르는데 사용한다.

- (7) 부모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진리를 사랑한다.**
- (8)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어떤 특별한 일을 하므로써 그들을 즐겁게 하여 **아름다운 봉사의 정신을 기른다.**
- (9) 건설적인 비평을 품위있게 받아들이기를 배워 **참된 기쁨을 맛본다.**

기쁨의 장미상을 받기 원하는 장미반 소녀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개의 조항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1) 첫해에는 진리의 보배에 기재된 두개의 항목을 이행하도록 한다.
- (2) 다음 해에는 나머지 항목을 이행한다.
- (3) 독서 선정표에 있는 책을 한권 읽거나 본지의 여섯개 제목의 청소년 편을 읽는다.
- (4) 잠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제 자리에 옷을 놓는다든가, 방을 정연하고 깨끗하게 한다든가, 자기 옷을 자기가 빨다든가, 자기 일을 자기가 하여 개인적인 과제를 완수한다.
- (5) 장미의 상징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의 생활에 적용한다.

월계상을 타고자 하는 월계반 소녀들은 매 회기마다 두개의 생활의 진주를 택해서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합니다.

- (1) 맡겨진 일과 책임을 명랑하게 받아 들이는 **미의 진주.**
- (2) 시사(時事)에 관한 것과 성전을 읽는 **지혜의 진주.**
- (3)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일을 하는 **사랑의 진주**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상 열거한 것은 각 조항에있는 열 두개 항목중에서 각각 한개씩 만을 든것입니다.

위대한 봉사자 상이나 황금의 이삭줍기상을 타기 위해서는, 봉사와 이삭줍기반 회원들은 선한생활을 인도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다음에규정된 활동 사항을 완수해야 합니다.

- (1) 일년 동안 교회의 어떤 조직에서든 반 교사를 하여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 (2) 어떤 지부나 지방부의 오락 행사의 사회를 맡아 보아 **행정에 대한 경험을 갖는다.**
- (3) 공식 토론에서 반의 의사를 대표하므로써 **교양을 갖는다.**
- (4) 드레스나 양복이나 코트 등 세 종류의 옷을 만들어 봄으로써 **창조력을 기른다.** 다시말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수상후보자가 이루어야 할 40여개의 행위중에 몇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청남반을 위한 제언

교사의 교육과 부모의 격려를 통해서, 모든 소녀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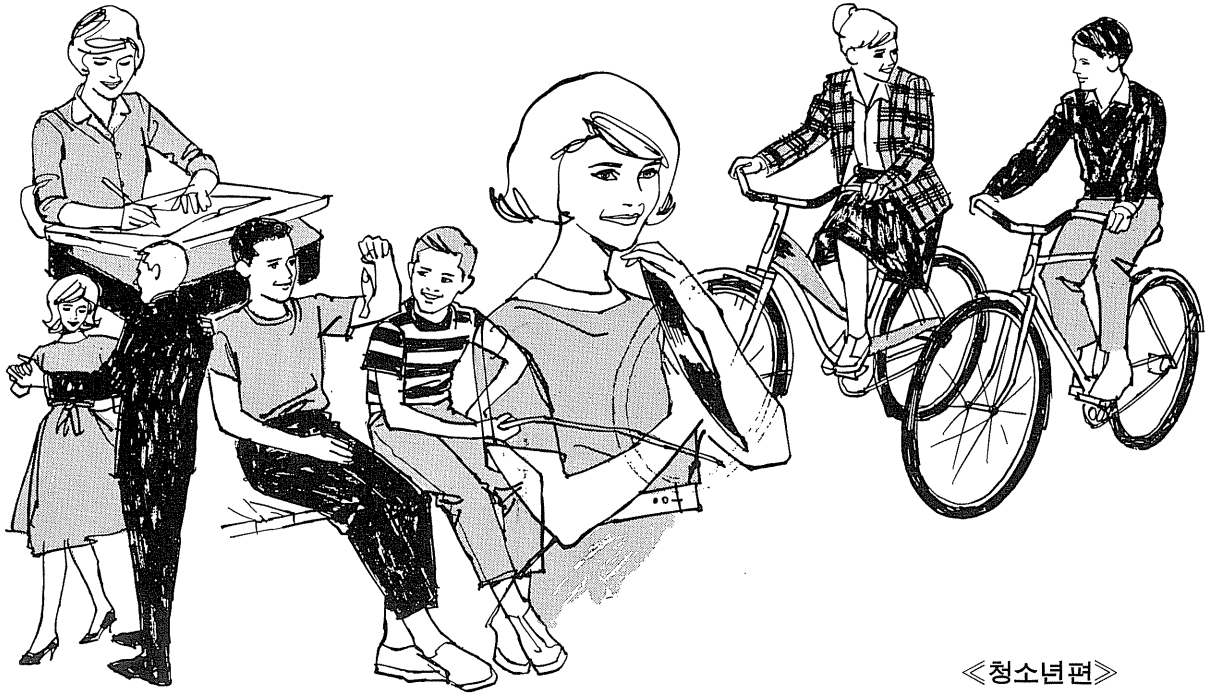
상향회 활동 계획에 있는 소년단, 탐험대, 기수반, 봉사반 등의 매일 혹은 매주의 활동을 통해서 신권 소유자로서의 훌륭한 남성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단으로서 임무를 마치고 나가게 되면, 그는 이급단원, 별급단원, 범단원(미국에서는 독수리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단은 보통 각 나라에서 통용되는 소년단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교회의 지방부 역원이나 단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침서에서 알아 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 정신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소년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에의 충성”의 상은 그 자신과 가족과 그의 하늘 아버지께 사년간 봉사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12살 때 이 요구사항을 완수하기 위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나, 19살 때까지는 이일을 완전히 끝맺어야 합니다. 이 상은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 하겠습니까.”라는 소년단 선서의 첫째 조항을 지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알려진 합당한 자격이 있는 말일성도 청소년에게 주어집니다. 이상의 요구 사항은 아론 신권, 주일 학교, 소년들을 위한 청남 상향회 프로그램의 이상과 규범에 초점을 모으는데 있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사항과 아울러 그는 아론 신권 증서를 받아야 하며, 적어도 75퍼센트 이상 주일학교에 참석해야 하며, 75퍼센트 이상 청남 상향회 정규 모임에 참석해야 하며, 한국내의 소년단이나 탐험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살고 있는 지역의 상향회의 각 반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상향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영감으로 신권에 의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상향회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인도를 구합니다. 그들은 공과 과정과 달성해야 할 과제의 대요를 연구 합니다. 그들은 확고한 복음의 간증을 지니고 있으며 모범을 보입니다.

청소년들이 매주 상향회 지도자들의 주관하에 있는 동안은, 외부 세계의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이루고, 인류를 위해 많은 것을 바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들은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상향회는 교회에서 넓게는 단체 혹은 국가에서와 특히, 그들의 자손의 번영과 교훈을 위해 그들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들에게 닥쳐 올 부름을 가지있게 하기 위해 그 는 과제를 맡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지도들을 돕와 영감을 끊임없이 받아 들이고, 그러한 일을 계속하기를 즐겨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상향회가 있습니다.



《청소년편》

보다 두터운 家族의 相互유대를 위해서는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 나누고 희생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方法이 없으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는 사랑만큼 큰 사랑은 다른 方法을 통해서 얻지 못한다.

단란한 가족의 유대

로사린 환스워스

나는 나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 이유인즉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으나 사랑과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했던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잊지 못해하는 가족들과의 경험은 교회 활동

과 관련된 일들이다. 우리들은 함께 교회에 다녔으며 부모님은 우리를 절대로 따로 보내시지 않고 늘 함께 데리고 다니셨다. 주일학교 댄스 날 아버지나 어머니가 함께 계셨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함께 하시지 않았던 주일학교는 기

역할 수가 없다. 우리는 가정의 밤을 갖고 가족 기도회를 가졌었다. 매일 밤 저녁 식사를 들기 전에는 교회의 표준 성전 중에서 한 장씩을 읽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서로 더욱 친밀해졌고 경전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매우 궁핍한 대 가족으로서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할 때가 많았으며 때로는 그런것도 없이 지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더욱 키워주는 것이었다.

우리 교회의 여러 활동은 나로 하여금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큰 경험을 쌓게 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선교사가 선교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럿이 함께 재정적인 책임을 지는 일 같은 것이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드리는 찬사로서 이 경험담을 얘기하고 우리가 영적인 일에 참여해서 받았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나는 우리 아홉 형제 중 만이었던 형님과 특별이 가까웠으므로 그가 남극동 선교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지금도 내가 손꼽는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되며, 그 이유는 그가 어린 누이와 동생들에게 의롭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 주었던 때문이다. 우리는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큰 도시로 떠났으며, 그곳에서 일자리를 잡고 대학 공부를 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형님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럴 즈음에 나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줄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나에게 선교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형님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나는 그 가을에 대학에 입학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알아내기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일이 있는 후 어느 주일날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교회에 갔다. 그 날은 스테이크 대회로 에스. 딜 워즈 영 장로가 말씀하게 되어 있었으며, 그 분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자신이 그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느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이 때 나는 분명한 답을 얻었다고 생각했으므로 아버지와 함께 얘기한 후 나의 뜻을 밝혔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기를 꺼려하셨다. 더욱이 내가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셨으므로 그 일은 아버지 자신의 책임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내가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일을 꼭 해야겠다고 말씀드렸다. 그제서야 아버지께서는 동의하시고 내가 주로 일년동안 형님의 뒤를 보살피 드리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은 내 평생에 가장 귀중한 경험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주님께서서는 나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셔서 나는 형님의 재정

적인 바라지를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음해 대학 입학에 충분한 돈을 저축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 일이 있는 후부터 우리 형제들은 서로 다른 사람의 선교 사업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형님이 선교사업에 마치고 돌아 왔을 때 나는 선교사업을 충분히 감당해 낼 연령에 도달해 있었으며, 나의 선교사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족회의에서 토의 되었었다. 회의 결과 아주머니, 아저씨, 형님 그리고 누이 동생이 함께 나의 뒤를 보살피기로 했고 이들이 애써 번 돈이 선교지역에 있는 나에게 도착했을 때 고향에 있는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사랑과 감사의 염은 더욱 커졌다. 이때 나의 형님은 대학에 다니면서 나를 도왔고, 나의 누이 동생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스테이크 선교사업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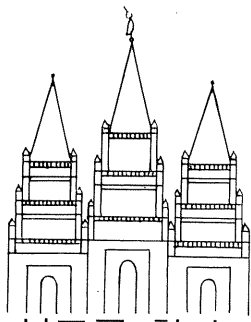
다음으로 두 사람이 선교사업을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는 남동생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동생이었다. 그들은 약 두 달을 격해서 떠났으며, 누이 동생이 떠난 후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집 사정을 잘 아는 와드의 한 회원으로부터 “환스 워즈 형제님, 어떻게 두명의 자녀를 동시에 선교사로 보내 놓고 뒷바라지를 하실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집에 송아지 57마리가 있는데 그 아이들의 뒤를 대어 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 57마리 모두와 그 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 해도 그 일을 해 내요야 말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이다.

어머니께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우리는 하루에 한번, 혹은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자금이 생기는 대로 그들에게 붙여줍니다. 신앙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일을 해 낼 수 있습니다”고 대답하셨다는 것이다.

그분들의 큰 신앙과 주님을 섬기려는 뜻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 형제들에게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귀한 교훈이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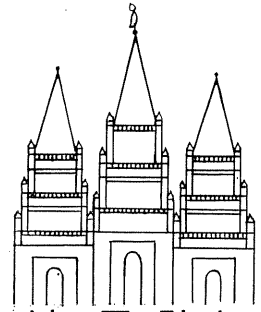
최근에 내가 고향 집을 방문했을 때 열살된 남동생이 뛰어내와서 새 팔목 시계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장식용에 불과했으나 동생은 마치 온 세상을 소유한 것 처럼 느끼는 것 같았다. 후에 나는 어머니에게서 동생이 형과 함께 목장에서 건조 묶는 일을해서 번 돈으로 그것을 샀으며, 일해서 번 돈 대부분을 선교사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어린 동생이 친구들을 찾아 저 넘어 길든 언덕으로 기뻐 뛰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서 나는 견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었다. 이때에 나는 아무리 값있는 물건이라도 이처럼 큰 기쁨으로 가슴을 채워줄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처럼 선택된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고 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종종 기도한다. 현재 우리 가족 중에는 세 사람이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족의 유대를 가깝게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정의 사랑보다 더한 것은 없으며, 영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 만큼 이 사랑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조를 찾자

가족 단위



선조를 찾자

작년에는 교회 회원에게 신전 사업 분야에서 각자가 맡은 바 신성한 책임에 대하여 강조해 왔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고 모로나이 천사가 선지자 요셉 스미스에게 말했던 그 교리를 말일성도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 주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우리는 이번 달을 호시로 신권지도자, 각반 교사 및 객에 있는 교회 회원에게 그들의 가정, 도시, 국가, 나아가서는 폴트 레이크 본부 계보 협회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의 사용법을 가르치려고 한다.

우리 교회 회원이 관여하고 있는 계보 조사의 목적은 조상에 관한 것을 충분히 조사하여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 상호간의 관계와 그들 개개인의 가족 관계를 알아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 중 해의 영광에 승영하도록 주님의 신전에서 대리 의식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계보 기록의 주요 목표는 조사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목적을 달성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데에 있다. 계보 용지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의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록한 성스러운 기록이 아니다. 참다운 기록은 신전에서 실제로 집행된 의식에 관한 기록이다. 따라서 우리가 수집하는 기록은 신전 사업이 틀림이 없고 정확한 것이 되도록 가능한 정확하고 진실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 만약 그 의식에 오류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행위를 승인하는 신성한 인을 찍지 않으실 것이다.

신전 사업에 예비적인 것으로 계보 조사에 도움이 되는 “가계도”라는 중요한 용지가 있다. 가계도는 행로의 길잡이가 되는 도로 표시 도표와 같은 것이다. 누구든지 전에 가보지 않았던 곳을 자동차로 여행해야 한다면 출발하기 전에 먼저 도로 표시 지도와 도표를 구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지켜야 할 모퉁이와 동리를 알아야 할 것이

다. 그는 가장 좋은 도로로 가장 단시간에 목적지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가계도는 우리 조상의 성명, 출생 일자, 출생지, 사망 일자, 사망 장소 등을 보여 주는 도표가 된다.

계보 조사의 한가지 목표는 가능한 데까지 우리 조상을 찾자는 데에 있다. 이것은 대개 세가지 방법으로 달성된다. 첫째,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아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가계도를 그려 나간다. 그 도표에는 가족 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자료를 다 사용할 때까지 다시말해서 자신 부모, 조부모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도표에 기록한다. 둘째, 그런 다음에는 친척을 만나보고 그들이 가계도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 본다. 셋째, 이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계보 조사를 시작한다. 우리는 조상이 살던 곳, 그들의 출생, 사망 장소의 시, 군 호적계에 서한을 내든가 직접 찾아간다. 그리하여 자료를 입수하면 그것을 가계도에 기록하여 가능한 데까지 우리 직계 조상을 찾아 올라 간다.

가계도는 가족 사항이 아니라, 직계 조상에 관한 사항만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계도에는 가족이나 가족 상호관계에 관하여 상세한 것을 기록할 난이 없다. 교회 회원의 책임은 자신의 가계를 조사하여 조사해낸 가족을 종합하여 완전한 가족의 유대로 만드는 일이다.

이 가족의 유대는 가계도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조상의 한 식구로 인봉될 수 있다.

우리가 계보 사업에 관하여 알아야 할 상세한 사항이 몇가지 있다. 첫째, 남자는 자기 가문의 계보 사업에 책임이 있으며, 여자는 그녀의 가문의 계보 사업에 책임이 있다. 여자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원래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여자는 자기 남편의 가문에 대해서 조사할 책임이 없으며, 남자는 자기 부인의 가문에 대해서 조사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혼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성스러운 특권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가계에 관하여 계속 조사한다면, 참으로 가치 있는 자료가 될 문서를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 결혼 증명서, 친계 혹은 측부 증명서 등등 많은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이 귀중한 자료는 여러분이 자신의 직계 가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한다.

가족의 스크랩 북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가족이 많다. 이것은 제보 기록과는 다른 가족 역사에 관한 기록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앞으로 있을 세대를 위하여 보관될 뿐 아니라 전 가족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록이 많이 첨가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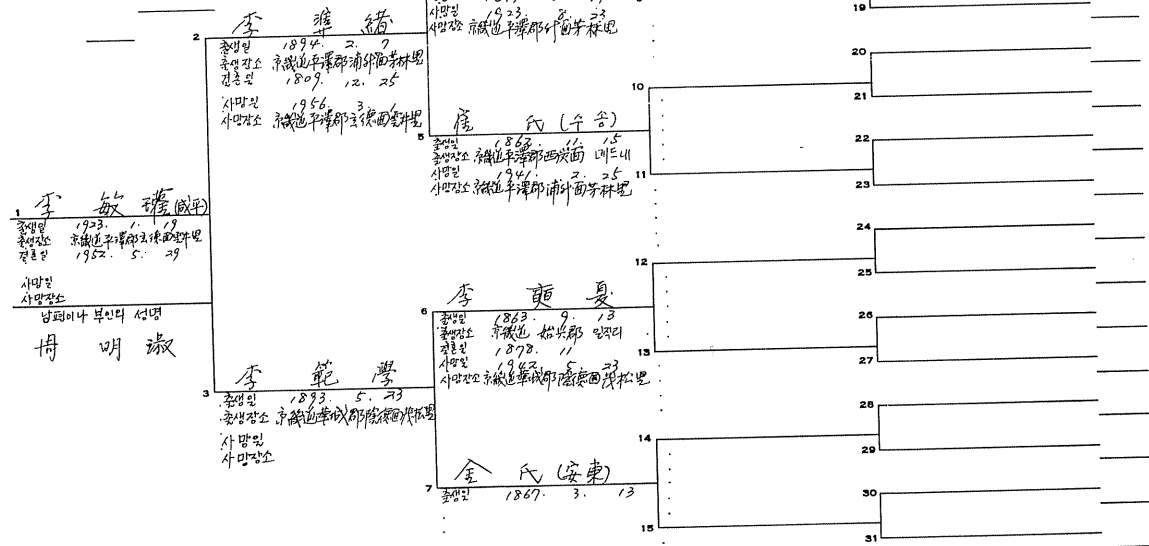
가족은 이 기록에 짙막한 기사, 사진, 증명서, 주일학교 상장, 유언장, 신문에서 오려낸 것, 군대 기록 및 기

타 여러가지 신분증 및 수상 기록을 삽입시킨다.

다음 달에는 우리의 죽은 사람을 위하여 신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족 기록을 편찬하는데에 있어서 가계도를 사용하는 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성도는 모두 어느곳에 있던지 조상의 가계도가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신전 사업이 정확하고 또 정확한 근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상의 가계도를 준비하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계도를 정확하게 그리는 법을 보여준 바 있다. 때가 충분한 이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수행하기가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것인가 살펴보기 바란다.

일자 1968. 5. 6
 제출자 李敏權
 주소 鍾路三清洞 2-21
 시 서울특별시 나라 韓國



나의 제언

선교부장 배 일문



너희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모습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빌립보 2:5~6)

보라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모세서 1:39)

위의 경전의 말씀을 우선 적어 보았습니다. 지난 달에도 “인간의 잠재력”이란 주제로 말씀드렸으므로 이제 아래의 시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대신 하려합니다. 問題는 마음의 姿勢입니다. 우리는 모두하나님의 자녀요, 원하기만 하면 완전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음 가짐에달렸 습니다.

권 위 자 의 손

그것은 밝고 때묻은, 도대체 쓸모가 거의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경매인은 마침내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그 밝은 바이올린을 집어 들었다.

“여러분, 경매를 시작합니다.

누가 시작하시겠습니까?

일팔라! 일불! 아니 이불! 단지 이팔라란 말이죠? 3팔라는 없습니까? 자 3불은?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이때 저 맨 뒷자리에서 반백의 머리를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바이올린을 집어 들었다.

케케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그리고 그 밝은 바이올린의 늦춰진 현을 팽팽하게 고쳐 맨뒤, 기가 맥히게 멋진, 아니 깨끗하고 청초하여, 마치 천사의 노래같은 음악을 연주했다.

음악이 그치자 다시 경매인이 바이올린을 집어 들고 그러나 이번엔 조용하고 낮은 음성으로 이야기 했다. “이 해묵은 바이올린 경매를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바이올린을 높이 쳐들었다. “천불!” “아니 누구 2천불은 없오?” “이천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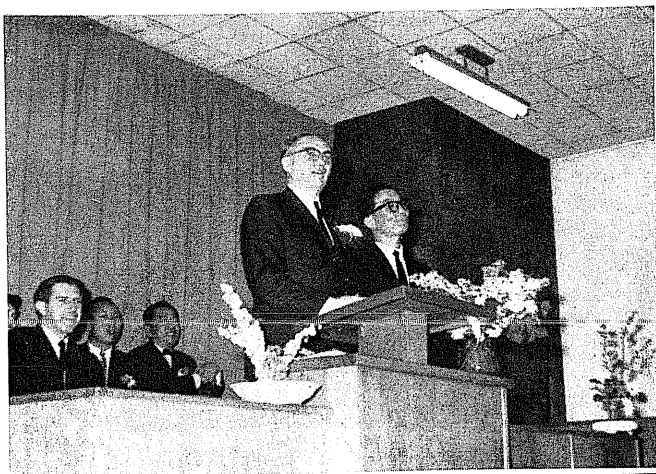
“누가 3천불을 내겠오?” 삼천불을 누군가 내겠노라고 했고, 이어 또 한번 삼천불의 소리가 들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값에 경매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상기되었고 그중 몇몇은 알지 못하겠다는 듯 외쳤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인걸.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값이 그렇게 경충 올랐담?” 그러나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대답이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권위자의 손이다”라는.

이처럼 제 본래의 길과 영역에서 벗어난 채 죄로 인하여 녹슬고 낡아버린, 수 많은 사람들!

그리하여 쓸모없는 군중으로 취급된 채, 저 밝은 바이올린처럼 값싼 낙인을 받고, 해장국, 술 몇잔, 유흥, 이런 것으로 소일하고 한때는 경기를 잡고, 아니 두번쨰, 제법 값을 인정받는듯 하다가 마침내 팔리려 할 즈음, 주가 오신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군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인간의 가치! 그것이, 그 가치가 달라진다.

“오직 주의 손길이 닿으심으로 하여!”

힝크리 사도님 한국에 오시다



12사도회의 한분이시며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시는 힝크리 사도님과 자매님이 지난 4월 27일 JAL 비행기편으로 한국에 오셨다. 극동지역 방문의 일환으로 내한하신 힝크리 사도님 부처께서는 선교부장단과 지방부 역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트렐을 밟으셨다. 트렐에서부터 손을 내두르셨던 힝크리사도께서는 오랜 여행과는 관계없는 건강함 모습으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잊지 않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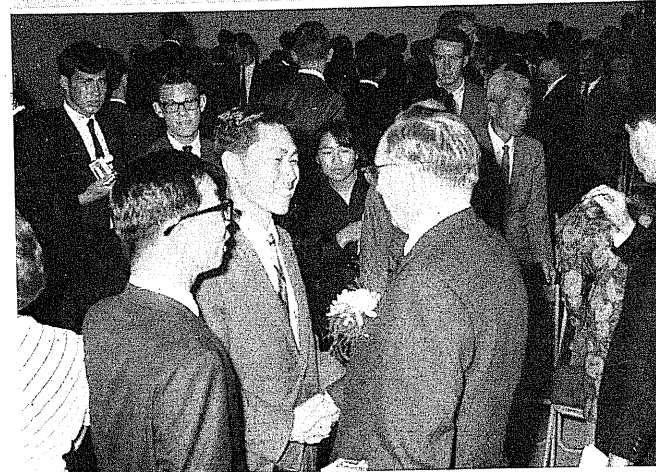
오후 7시 선교본부에서 선교부 산하 역원들의 노년의 모임에서 질의를 받으셨던 힝크리 사도께서는 우리 교회의 교리를 하나 하나 풀이해 주시면서 말일에 회복된 교회의 증좌를 제시해 주셨었다.

28일 오전 지부로 승격하는 신촌지부 모임에도 참석해 주셨던 힝크리 사도님은 오후 용산에서의 외국인 집회에서 말씀하시는 외의 시간을 선교사 모임과 면담을 하시는 분주한 일정을 가지셨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있었던 서울 성도를위한 서부지부에서의 모임에서도 말씀하셨던 힝크리 사도님과 자매님은 넘치는 복음의 풍성함을 보여주셨다.

4월 29일로 결혼 31주년을 맞으신 노부부는 오전 다음 일정을 위해 한국을 출발 하셨다.

한국에서 남겨 주신 말씀을 받쳐해서 실는다.



힝크리 사도님의 말씀

모든 아름다움이란 내적인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드린 사람은 아름답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생활화 할 때 그 사람은 더욱 훌륭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친히 세상을 방문했던 기회는 몇 번이 안됩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았을 때에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니파이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이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 기록을 봐도 이 세번 이외에는 나타나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번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히 나타나셨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에 이어서 일어났던 일이며 모로나이는 고대에 이 세상에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14세기전에 파문되었던 기록을 그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침례 주었던 침례 요한이 나타나셨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곱이 또 나타났습니다.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셨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 아닐 때 여러분과 우리는 세상의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일 때 이 세상에서 우리 만큼 책임이 무거운 사람은 없고 우리야말로 가장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교나 신교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의 많은 친구들이 거기에 속해 있으며 저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희들이 갖고있는 위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걸어온 바와 같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알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너무도 평범치 않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신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훌륭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기를 바라시며 좋은 습성을 갖기를 바라시며 도덕적으로 순결한 남자가 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아이들과 부인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남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권을 존중할 때 이러한 것을 소홀히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권을 가지고 계신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성령의 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과 같은 분명한 축복의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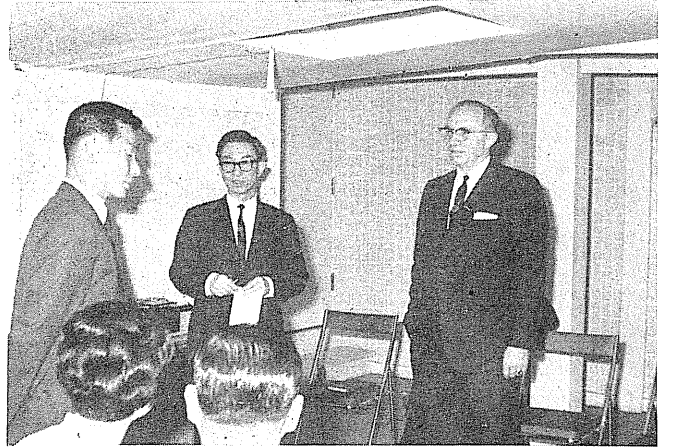
헝크리 자매

몰몬교회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아이들 앞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도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흉내내고 조금 이상하게 걸기라도 하면 곧 그것을 흉내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모범은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 즉 물몬경이나 성경같은 것을 들려 주어야 합니다. 어려서 들려주는 것은 오랫동안 머리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커다란 영향력을 미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 관계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족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에서의 가족관계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 훌륭한 가족관계를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들로하여금 상호부조회에서 봉사하도록 협조를 한다면 결과는 자기의 부인을 그 어느 부인 보다도 훌륭한 부인으로 훈련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의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 밖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고 어두운 면이나 약점을 감출 수 있지만, 가정은 적나라한 자기가 생활하는 곳이기에 때문에 정말로 복음을 자기에게 맞도록 훈련하는 장소이고 복음을 얼마나 생활하고 있는나를 시험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예하 각 지부 주소

선교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전화 ㉓ 3995
중앙지방부		
청운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전화 ㉓ 3995
동부지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4의 19	전화 ㉒ 1005
동대문지부		
삼청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전화 ㉒ 3596
서부지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의 1	전화 ㉓ 1208
성북지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의 13	전화 ㉒ 0744
신촌지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7의 13	전화 ㉓ 4279
영등포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54의 15	
녹번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동 5의 21	
인천지역	인천시 답동 37번지 송도 중·고등학교 옆	전화 ㉒ 9852
대전지역	대전시 대흥동 440의 1	전화 ㉒ 6273
남부지방부		
대구지부	대구시 삼덕동 2가 24번지	전화 ㉒ 6659
부산지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95번지	전화 ㉔ 7071
동구지부	부산시 동구 수정동 685의 10	
동래지역	부산시 동래구 장전동 297의 2	
광주지부	광주시 충장로 4가 34번지	전화 ㉒ 2692
전주지역	전주시 경원동 1가 58번지	전화 2819

도 서 안 내

일 반 용

물몬경	150원
물몬경 (가죽표지)	1,200원
물몬이란	100원
효과있는 가르침을 위한 제언	50원
찬송가	50원

주 일 학 교 용

그리스도의 생애	100원
기이한 업적 (상권)	50원
기이한 업적 (하권)	50원
말일성도란	100원
복음의 실천	100원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	100원
생활에서 본 회복된 교회의 원리	150원
성전중의 지도자	100원
주님의 멍세이지	100원
주님의 멍세이지 (교사 보조 교재)	100원
회복된 교회의 역사	150원
이야기로 엮은 구약 성서	150원

상 향 회 용

강력한 지도력을 통한 인격 강화	20원
봉사 이삭줍기반 공과	100원
상향회 역원 지도서	50원
선택의 밤 (봉이반 공과)	50원
장미반 공과	150원
지도 원리	50원

신 권 회 용

아론 신권회 지침서	20원
인간과 하나님	100원
집사 교문 지도서	150원
회복된 성교회	100원

유년주일학교용

우리의 종교생활 (상)	100원
우리의 종교생활 (하)	100원
주안에서 자라남	150원
복음안에서 자라는 어린이	150원
어린이 찬송가	100원

※ 도서는 선교부 판매부에서 혹은 지부장에게 선금을 주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